



불서읽기 캠페인

“눈 달린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다”

저자, 책을 말한다

요봉 스님(화계사 문화원장)



거꾸로 읽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이 뭐고?
요봉 스님 풀이 | 20,000원



부처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사신다면 과연 <천수경>을 무엇이라 설할까? 한문이 어려워 한글로 풀어 주십사 부처 드리면 무어라 설명하시오 어떻게 풀어 주십사? 세간에 떠돌아 다니는 허다한 해설서들을 보시고 과연 얼마나 기뻐하실까?

“무엇을 배우느냐” 보다 “어디서 논느냐” 가 중요 첫째, 불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정말인가? 한문의 문제인가 아니면 법이나 팔리어에 문제가 있는가? 말씀자체가 어려운가? 혹은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를테면 공부하지 않으려는 병에 걸려 시대와 세대를 탓하는 무리를 보시면 어떻게 대처하여 도와주실 수 있을까?

둘째, 다종교 시대, 불교에 대한 불평은 거의 정치나 권력에 빌붙어 사는 종교의 실증화로 말미암아 신앙과 철학을 따라 투쟁하던 단순성과 현재적 안일과 행복에 매도되어 인간성 자체의 괴리감을 체현하게 한다. 예컨대 사람의 사회성, 생활성, 종교성에서 거리가 멀다는 투의 불평들이다. 사실일까?

셋째, 불교는 종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안팎으로 공통적인 교계의 실존이나 의문점이다. 과연 불교는 종교인가? ‘religion’과 종교는 전혀 다른 말이다. 단순한 이 번역이 유교나 불교를 갑작 놀라게 만들었다. 나는 이 대답을 위해 평생을 살았다. 불교대학을 다닌 것도 서양철학을 일부러 전공한 것도 이 문제와 연관이 있다. 뒤에 강단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외국에서 강의하고 보다 다양한 체험을 위하여 전문가들과의 교분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내가 나라 안팎에서 강의한 중요 내용과 방향은 학교에서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서양 대학에서 얻은 지식도 아니었다. 저들을 일깨우고 불교를 소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다름 아닌 나의 두 스님에게서 주어 들은 법문이었다. 덕산(화계사 조실) 스님과 해암(수덕사 방장) 두 스님이었다. 결국 무엇을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논느냐가 중요했던 것이다.

“그 이름이 다만 부처일 뿐이다”
“부처가 부처가 아닐세 그 이름이 다만 부처일 뿐이다.”

부처가 그러하다면 불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실은 이 세상에는 소위 불교가 있지만, 인간 자신을 깨우치시는 부처님 말씀 그 자체는 없다. 본래 불교라는 종교도 없는 것이고 부처님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 그 자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세상이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진리는 이미 그들 자신이 진리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터이며, 이는 마치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라는 말과 같다. 인간은 마치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

“말없는 것이 부처이다”

부처는 자신을 위하여 설할 수 없다. 말없는 것이 부처이다. 인간과 중생도 자신을 설할 수 없다. 중생은 자신이라 부를 것이 없다. 진리의 참된 말씀은 누구의 작품이어서도 안된다. <천수경>은 부처의 말씀도 아니고 중생의 설함도 아니다.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니며 소위 신과 고리를 연결 맺는 서구적 종교도 아니다. 구원과 의지의 절박함은 어느 경우에도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말과 현상들이 하늘의 말씀이라면 세상의 모든 말과 경계들이 하나도 부처님의 말씀 아닐 수 없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사실’이라는 중요한 인용구는 인간의 편벽중에서 온다. <천수경>이 부처님 말씀일 터가 없지만 부처가 깨달음이라는 가장 비 인간적 실체를 이룸으로 부여하는 한 동시에 가장 신실하고 완전한 부처님 말씀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기 숭배이며 거룩한 증득(證得)이요 자기 초월이다. 해탈의 체현인 것이다.

제 마음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모두 잡소리
법문의 병에 걸리면 남을 가르치려는 고약한 오만이 나의 주인이 된다. 오만은 본래 속인이지만 남 보다 제 자신에게 독약이다. 그래서 필경 살생을 자행하게 된다.

법문하는 병이 바로 속이다. 나아가 음행이다. 도둑질이다. 안팎으로 속이느라 속는 일이므로 간탐이며 망어, 기어, 양심, 악구가 된다. <천수경>은 당연히 인간의 부조리와 불성의 문제를 다룬다. 그리고 그 실체를 관음(觀音)으로 본다. 부처님이 밖에 따로 존재할 수 없음을 지시하기 위하여 나를 돌이키는 까닭에 밖으로는 관음의 가피를 입는다고 이른다. 부처를 찾지 않고 그 부처를 성취하는 것으로써 저절로 부처님을 뵈기 때문에 경, 혹은 부처님 말씀이라는 칭호를 얻는다. 그리고 스스로 이 모든 사실들을 터득하게 하므로 부처님의 말씀이듯 곧 열불이라고도 부른다. 그 어느 것도 열불 아닌 것이 없으니 세소리 물소리를 돌이키면 모두 부처님 법문인 까닭이니 제 마음 돌이켜 깨닫지 못하면 모두 잡소리이며 번뇌의 마구이다. 모든 대립과 갈등들이 스스로 조화를 이루고 번뇌와 보리, 나아가 중생과 부처, 필경 주인과 종이 한 몸을 이루는 이치가 모두 여기에서 비롯한다.

천수경으로 보는 인간성 회복과 견성의 길
해설과 해석과 단순 풀이를 떨치고 일어나 <천수경>을 인간성 회복과 견성의 길로 뒤집어 보려는 시도라 일컫는 이유이다. 문제점을 제기하고 화두로 돌이키도록 중용하며, 일러주어 얻게 함이 아니라 집요하게 소유되어진 지식들을 추격하여 파괴하고 근거 없는 신앙심을 지혜에 기대어 버리고 과감히 본래의 집으로 돌려보내는 시도를 조장한 것이다. 불교 특히 선의 입문이라 부르고 싶은 까닭이 여기 있고 첫 판의 부제목이 ‘눈 달린 돌 사람 글자 없는 책 읽다’ 인 까닭이다. <천수경>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 부처의 길은 하나이며 이를 고집멸도로써 설명할 수 있다면 <천수경>은 그 구체적 방향이며 해설인 셈이다. 인간은 그 자신을 통하여 자기회향을 지향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을 파멸시키는 여러성을 과 성질부러 괴롭히고 욕심내어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하지 않는 한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인 것이다. 깨달음의 온전한 가능체인 것이기 때문이다.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5>

법문 들은 제자들은 누구였나?

부처님의 곁을 늘 따르던 제자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누는데 상수중(常隨衆)과 내집중(來集衆)이다. 상수중이란 글자 그대로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라는 뜻으로서 쉽게 말하면 인간제자집단(人間弟子集團)이다. 이 인간제자집단들을 다시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이(優婆夷) 등 네 부류(部類)로 나누지만 일반적으로 상수중이라 하면 출가(出家) 대중을 말한다. 특히 이 들은 늘 부처님 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경(經), 즉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들게 됨으로 성문(聲聞)이라고도 부른다.

내집중이란 타방세계(他方世界)에서 오신 대중이란 뜻이니, 다른 세계의 불보살님들이 이 사바세계(娑婆世界)에 오셔서, 사바교주(娑婆教主)이신 석가

그래서 그들을 총칭(總稱)하는 말로서 천이백오십인(千二百五十人), 또는 1,250비구(比丘) 또는 1250아라한(阿羅漢)이라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1250 보살승(菩薩僧)이라고도 하였으니, 왜 그렇게 호칭(呼稱)이 달라졌을까.

그저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언어(言語)의 속성(屬性) 한 단어(單語)는 한 가지 ‘말 값’ 만을 지니고 있다는 원칙(原則)에서 본다면 무엇인가 의미가 없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천착(天鑿)이라고도 하겠지만 속담에 <아하> 다르고 <아허> 다르다 했으니, 이유는 없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이지만 동일한 집단을 지칭(指稱)하는데 사람, 비구, 아라한, 보살승 등 네 가지 호칭

상수중, 부처님 곁에 머물며 법 듣는 제자 내집중, 타방에서 와 법문 찬탄하고 장엄

모니 부처님의 법화(法化)를 찬양(讚揚)하고 장엄(莊嚴)해서 그 법화(法化)가 더욱 널리 퍼지고 법익(法益)이 영원히 두루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다.

그분들이 오셔서 법회(法會)를 더욱 장엄하게 하신다 함은 때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매우 만나기 어려운 법문이니 잘 들으라고 찬탄 권유하시는 것이다. 마치 <아미타경(阿彌陀經)>의 경우와 같고, 때로는 <법화경(法華經)>에서와 같이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몸소 허공에 솟아올라 신변(神變)을 보이거나,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게 하여 시회대중(時會大眾)들이 미증유(未曾有)의 마음을 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 내집중을 영향중(影響衆) 즉(卽) 영향을 주는 대중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인 이 무렵의 상수중은 그 수효가 이미 천이백오십인(千二百五十人)이었다.

(呼稱)이 등장하는 원인은 없지 않을 것이요, 없지 않다면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추상(抽象)컨대, 그분들도 일단 사람이니가 사람[人]이라 했고, 출가사문이기 때문에 비구(比丘)라 했고, 모두가 아라한이 되기를 희망(希冀)했기 때문에 아라한(阿羅漢)이라 했고, 모두가 끝내는 성불할 수 있는 불종자(佛種子)를 내포(內涵)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승(菩薩僧)이라 한 것이 아닐까.

다시 말해, 발심에는 선후가 있을지언정 출가 그 자체가 성불은 아니기 때문에 출가한 이에게도 과오(過誤)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假定)이 성립될 수 있으니, <능엄경(楞嚴經)> 첫머리에 아난존자(阿難尊者)가 마등가(摩訶伽)의 음주주변(淫室周邊)에 배회(徘徊)하다가 마등가의 주술(呪術)에 홀려 혼쫓이던 것이 바로 그 한 예(例)일 것이다.

불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自然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품격높은 최고의 선물!!!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비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髓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립니다.

- 별도상담(자연산삼, 장뇌산삼)
- 100년, 120년 자연 산삼 5주(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문의상담**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주문처 | 서울 (02)713-7798 / 010-5250-7798

심마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정품 (본식 51160-150)

조계종 77조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인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 전강 대선사님 법어집 <달다>!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전강 대선사님의 법거량과 법문, 일화를 재조명하여 보였습니다. 전강 대선사님과 대원 선사님의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법거량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설강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다>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佛典 전등록 전5권 / 佛典 무문관 / 佛典 벽암록 / 佛典 천부경 / 佛典 금강경
- 佛典 신심명 / 佛典 중도가 / 佛典 반야심경 / 佛典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 佛典 환단고기 전5권 / 佛典 범용선사심명 / 佛典 선가귀감 / 佛典 범성계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원한현실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이 하얀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책머리에세상은묵신아 / 달다

법회 안내

-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육조정맥선원 선가귀감 법문 02-3494-0122
-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육조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육조정맥선원 빈아심경 법문 051-503-6460

78대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02-3494-0122 www.zenparadise.com